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Kimin An 안기민 사도요한 (510) 562-3843 email : joannesan2011@gmail.com 사목회장 정일양 안드레아 (오일공)육철이-삼구구육 email : iychung53@yahoo.com	사무실 Tel (510) 553-9434 Fax (510) 639-4842 email : standrewoak@gmail.com 화, 목 휴무 선종봉사회장 팽현팔 하비에르 (오일공)팔사칠-삼공일사
---	---

미사	주일미사	오전 11시	성사	고백성사	매 미사 30분 전
	평일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토 오전 11시		유아세례	사무실에 신청
				혼배성사	3개월 전 사무실에 신청
				환자봉성체	병자성사는 언제든지 신청

신심 단체	레지오마리아	매달 두 번째 월요일 저녁8시 총회합	성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성령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온라인	예비자교리	매주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향심기도회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	주일학교	주일 오전 9시 15분 온라인
	지속적인성체조배	일시 정지	한국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11시 반 온라인

< 연중 제 13주일 6월 27일 미사 전례 >

[제 1독서] 지혜 1,13-15; 2,23-24

[화 답 송] 시편 30(29),2와 4.5-6.11-12 그리고 13 (◎ 2-3 참조)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

○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제 2독서] 2코린 8,7.9.13-15

[복음환호송] 2티모 1,10 참조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복 음] 마르 5,21-43

전례 봉사							
	6월 29일(화)	6월 30일(수)	7월 1일(목)	7월 2일(금)	7월 3일(토)	연중 제14주일(7월 4일)	
						8시 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이은자 마트로나	이명련 파트리샤	장희숙 루시아	이명련 파트리샤	허홍숙 세실리아	이명국 바오로	임승원 루카
독서	이명국 바오로	이진의 안젤라	이기자 요안나	이경란 베로니카	이명란 아녜스	강신호 요한 이선미 에스더	한치용 요셉 한현자 헬레나
제의방	허홍숙 세실리아	허홍숙 세실리아	정진희 데레사	임은석 클라라	정진희 데레사	이선미 에스더	정진희 데레사 임은석 클라라

6월 구역반 모임		
1	오콜랜드	6월27일(일)7시반 줌미팅

◆ 주일미사 시간 안내

7월 4일(일) 주일부터 아침 8시 미사가 있습니다. 주일미사는 아침 8시, 11시 교중 미사 두 대가 있습니다.

** 7월부터 실시간 본당 방송 미사는 없습니다.

◆ 성시간

7월 1일(목) 저녁 7시 30분 미사 후

◆ 성모신심미사

7월 3일(토) 오전 11시

◆ 봉성체 안내

6월 30일(수)에 실버반 봉성체가 있습니다. 7월에 봉성체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성당은 기도하는 집

성당 중앙 통로 앞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대와 예수님 현존을 모시고 있는 감실이 있으며, 성당 중앙 통로는 전례 때(봉헌, 영성체)만 사용하는 통로입니다. 평상시에는 중앙 통로로 다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당 안에서는 조용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될 수 있으면 성당 출입 시에 친교실 쪽 옆문 사용을 자제해주시고 성당 정문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당에서는 휴대전화를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영실 데레사, 김아레 카타리나, 박종영 요한, 이윤지 소피아, 심데레사, 송성관 토마스, 부흥신 마티아 - **공동체 기도 지향**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사 전에 기도 신청자를 위하여 주모경 한 번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 안나요아킴회 위로잔치

오늘 교중미사 후, 대건회에서 그동안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신 본당 안나요아킴회 회원들을 위한 위로잔치가 사제관 앞마당에서 있습니다.

◆ 하상회+청년회 모임 및 잔치

7월 11일 주일 미사 후 사제관 앞마당

◆ 프란치스코 교황님 회칙 『찬미를 받으소서』 읽기

매주일 공지 사항 후에 환경생태 분과장 이 마트로나 자매님께서 후보에 있는 회칙 『찬미를 받으소서』 해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 **구반장회의**가 오늘 교중 미사 후에 교육관 106호실에서 있습니다. 반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모회**가 오늘 저녁 8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 2021년 2학기 성서사십주간 신청 안내

일정 : 8월 25일 개강 ~ 12월 15일 수료

시간 : 수요일 오후 7:30-9:30

대상 : CBLM 말씀의 봉사자 및 전체 교우

방법 : 온라인 zoom 강의

교재비 및 수강료 : \$20 + \$50

문의 : 사무실/권마리크리스티나 수녀

◆ **반주자 봉사**하실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물방 봉사**하실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발 봉사**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 **주일 사무실**은 신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당 들어오시는 **입구 오른쪽 방**에서 업무를 봅니다.

◆ 본당 청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11시 30분부터 빗자루회에서 본당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 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마스크 착용

오콜랜드 지역 교구의 지침을 따르지만, 백신을 접종했다라도 미사 때 마스크 착용 원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셔도 됩니다. 특히 주일미사 때 많은 사람이 실내에 모이는 만큼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하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성당청소해주신 빗자루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지난 한 주간 동안 전례 봉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2차 헌금

오늘 : 교황주일 Holy Father (Peter' s Pence)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요한 세례자(6/24) : 김종식(지난 주 누락)
- * 베드로(6/29) : 이성재, 임장만, 김현수, 김문환, 박진영, 소명환, 정병구, 정지오, 김경년, 김광석, 이기만
- * 바오로(6/29) : 김종성, 이명국, 김복철, 정지문, 김원일, 김아룡, 김광찬
- * 에스터(7/1) : 이선미
- * 토마스 사도(7/3) : 송인환, 송성관, 이상용



프란치스코 교황은 불편함을 무릅쓰고 우리의 ‘누이와 어머니의 절규’를 듣고 응답한다는 요지의 글을 실었다. 응답에는 단순히 듣는 것만 포함되지 않는다. 아픈 사람과 의사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고통을 겪고 있는 아픈 사람에게 의사는 그냥 “아프시군요!” “어떻게 하지요?” “그냥 꼭 참으세요” 하지 않는다.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묻고, 필요하다면, 첨단의료장비를 동원해 검사하고, 그래서 증세와 함께 그 원인을 찾아내어 그에 맞게 치료한다. 대개 병이 중할수록 혼자 하지 않고 협진을 한다.

회칙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오염과 기후 변화, 물 빈곤, 생물 다양성 상실, 인간 삶의 질 저하와 사회의 붕괴, 지구의 불평등 따위는 병의 증세들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래서 간단히 ‘환경’ 문제로 보려 할지 모르겠다. 실제로 언론에서는 ‘최초의 환경’ 회칙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한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는 ‘오해’를 살 위험이 있다. 우선 이른바 ‘환경’ 문제는 전임 교황들도 끊임없이, 그것도 시급하게 응답을 촉구하며 호소했다.

둘째로 ‘자연 환경’으로 축소(환원)시킬 수도 있다. 그렇지만 회칙은 ‘생태’를 대체로 인간 환경, 자연 환경, 그리고 사회 환경의 종합으로, 그것들 사이의 분리시킬 수 없는 관계로, 더 나아가 ‘하느님의 창조’라는 ‘실재’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비유하자면,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를 받으소서」는 ‘협진’ 하자는 초대라 할 수 있다. 그것도 중병으로 온몸 곳곳에서 견디기 어려운 통증을 느끼는 어머니와 누이가, 하느님의 삼라만상이 살아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이 지금 우리에게 울부짖고 있으므로. 형제와 자녀들이 모두가 하루빨리 모여서, 증세의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하자고 다급하게 초대한다. 협진하지 않으면, 결국 “하느님의 기대”(61항)를 저버려 “자기 파괴”(55항)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주님을 찬미하는” 하느님 백성이다. 주님 제대에 모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느님께 “주님

을 찬미한 삶”을 제물로 봉헌한다. 그래서 자꾸 서로 다짐한다. “주님을 찬미합시다!”

그런데 주님을 찬미하려는 우리 삶이 너무나 강력하게 광범위하게 그러면서도 피할 수 없이 도전을 받고 있다. 하느님께 봉헌할 제물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하느님 사랑의 무수한 역작이 전시되어 그 존재 자체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는 ‘이 행성’의 미래가 걸린 문제들이 ‘급속도’로 밀려들고 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 행성의 미래를 [지금] 어떤 식으로 꾸릴 것인가’에 관한 새로운 대화를 긴급하게 호소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의 도전과 그 인간적 뿌리들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며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찬미를 받으소서」 14항).

프란치스코 교황은 도전을 피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도전에 용감히 맞서고 극복하며 새로운 과정으로 그 도전을 편입시키는 길이 참된 평화, 참된 발전에 이르는 길이라 믿는다(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227항 참조). 또 우리 모두 실재주의자가 되자고 권고한다(「복음의 기쁨」 108항 참조).

물론 교황의 이 신념은 인류와 하느님께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에 토대를 두고 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결코 당신의 사랑의 계획을 돌보지 않으시거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뉘우치지 않으십니다. 인류는 여전히 우리의 공동 가정을 건설하는 데 함께 일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찬미를 받으소서」 13항).

우리는 어머니와 누이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공동 가정’에서 ‘인류 가족’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공동 숙제를 풀기 위해 가족이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 평화신문에서 발췌

- 우리의 정성

- < 주일헌금 > \$1,416
- < 교무금 > \$2,580
유윤미(7) 정일양(6) 최몽렬(1-6) 이상용(5-12/20, 1-4)
조우송(7-8) 이인학(1-6) 김복희(5-6) 최대연(6) 이기만(6-7)
- < 성소후원금 > \$ 160
이상용(5-12/20, 1-4) 박상일(1-12)
- < Bishop's Appeal >
이인학(1-6)
- < 감사헌금 > 송정현
- < 빈첸시오 후원 > \$ 640 주임신부, 김복희, 박상일
- < 선교 후원 > \$5,700 주임신부, 박경화, 익명

<p>< 우리의 목표 ></p> <p>♡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p> <p>♡ 신바람 나는 공동체 (성령의 은총이 가득한 공동체)</p>
<p>< 실천사항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 2. 복음을 읽고 실천하는 공동체 3. 신앙의 진리를 끊임없이 배우는 공동체 4.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

복음을 읽고 실천하는 공동체

- 미사지향

날짜		지향	봉헌자	날짜		지향	봉헌자
6/27(일)	연	이마르코(재상)	이골롬바(정연)		생	정스테파노(진)	정루치오(현준)
	연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 가족		생	박데레사(영실)	익명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명국)		생	박클라라(영자)	익명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정희)	6/29(화)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명국)
	연	유데레사(춘성)	가족		연	김요아킴(형찬)	가족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아네스		연	정미카엘	가족
	연	정베드로(창희)	정아가다(청자)		연	윤바오로(천호)	가족
	연	최모니카(임구)	최안드레아(용석)		연	박베드로	윤세레나(춘주)
	연	송아벨(성호)	송아네스(성숙)		연	성베드로	윤세레나(춘주)
	연	김다윗(승우)	황말찌나(정숙)		생	이야고보(원진)	이바오로(명국)
	연	황마르코(문환)	황말찌나(정숙)		생	박베드로(진영)	박마리아(덕희)
	연	정미카엘	가족		생	이바오로(명국) 가정	윤세레나(춘주)
	연	김프란치스코(범식)	김마리안나(정임)	6/30(수)	연	정미카엘	가족
	연	윤바오로(천호)	가족		연	윤바오로(천호)	가족
	연	조바울라(숙자)	조바실리오(진행)	7/1(목)	연	본당 선종 연령	선종봉사회
	연	조바울라(숙자)	부필로메나		연	정미카엘	가족
	연	황프란치스코	가족		연	윤바오로(천호)	가족
	연	황프란치스코	옥제노베파		연	이마리아(호순)	이에스터
	연	윤레오(기창)	윤루카/루시아		생	유리디아(윤미)	전수산나
	연	최도밍고(근주)	최안드레아(용석)		생	이정우/정한나	유리디아(윤미)
	연	최헬레나(신경)	최안드레아(용석)		생	김카타리나(아레)	김안드레아(찬곤)
	연	이마리아(호순)	이에스터	7/2(금)	연	정미카엘	가족
	연	이모니카(순)	정루치오(현준)		연	윤바오로(천호)	가족
	연	이엘리사벳(연애)	정루치오(현준)		연	한찬	이베로니카
	연	이마리아/부모형제	윤사비나	7/3(토)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명국)
	생	주임신부	임루시아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정희)
	생	김요안나(만옥)	윤루카/루시아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생	조에드워드/소피아	조분도/리디아		연	정미카엘	가족
	생	박요한(종영)	박안나		연	윤바오로(천호)	가족
	생	임스텔라 가정	임루시아		연	조바울라(숙자)	조바실리오(진행)
	생	김카타리나(아레)	임루시아		연	김요아킴(형찬)	가족
	생	정베드로(병구)	찬미성가대		생	김데레사(종숙)	임클라라(은석)
	생	정데레사(진희)	윤세레나(춘주)		생	김카타리나(아레)	김안드레아(찬곤)
	생	정프란치스코(울)	정루치오(현준)		생	김아델라/김다함	송베로니카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박사 이 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건강상담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p>	<p>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  SHINSEGAE TRAVEL 510-688-0155 이 베로니카 510-688-0157 이 레이몬드</p>	<p>정 태준(안토니오) 자동차정비 & 바디 Work 929 38th Ave. Oakland, CA 94601 ☎ 510-552-4418 Fax 510-535-0818</p>	<p>한인 크레딧 유니온은 금융기관입니다. 자동차대출, 체크킹, 적금 (213) 368 - 9000</p>
<p>송 이 응 법 무 (510)292-6050 ldanea.song@gmail.com 1723 Telegraph Oakland</p>	<p>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 (510)504-9250</p>	<p>J & J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와 바디수리 ☎(510) 236-0550 강 요한</p>	<p>맥정(말가리다) 공인세무사 · Income Tax · 세무장부정리 · 신규회사 설립 · 경영, 재정상담 ☎ (510)893-2377 2633 Telegraph Ave.#213 Oakland</p>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